



황강 장춘에서 조사연구 시 강조

봉사업의 량질 고효를 발전을 더욱 잘 촉진하여 더 많은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고 형성해야

4월 13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장춘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총서기가 봉사업 발전에 대해 내린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관찰하고 전국봉사업대회 배치를 참답게 실시하며 량력 확대와 품질 향상을 병행하고 발전과 감독관리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견지하며 봉사업의 량질 고효를 발전을 더욱 잘 촉진하고 내수를 한층 더 확대하며 더욱 많은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하고 형성해야 한다.



▲ 4월 13일, 성당위 서기 황강은 장춘에서 조사연구를 진행, 중국전력공정고문 그룹동북전력설계연구원유한회사에서 기업의 력사적 변천과 혁신 발전 등 상황을 상세히 료해했다.

중국전력공정고문그룹동북전력설계연구원유한회사는 새 중국 최초의 전력조사 설계 기관이다. 황강은 기업의 력사적 변천과 혁신 발전 등에 대해 상세히 료해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료색수소-암모니아-알콜 일체화 프로젝트인 중농건 송원 수소에너지 산업단지 동북전력설계원에서 총괄 시공한 사실을 알게 된 황강은 이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력사를 가장 잘 기리는 방법은 선배들이 개척한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라면서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경영형태가 가져온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경험을 총괄 적용해 종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려정에서 다시 한번 영광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강은 화웨이 길림지역 본부를 방문해 화웨이와 길림성의 협력 성과를 현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는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이자 길림성이 디지털화, 지능화, 정보화 방향으로 가속 발전중인 시점이라고 강

조하면서 화웨이와 길림성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성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과학기술 공략을 진행하여 더 많은 길림 기업을 공급망 생태계에 편입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웨이가 길림성에서 얼마나 큰 사업을 벌이든 우리의 지원도 그만큼 커질 것이며 길림성은 화웨이의 신기술에 더 많은 적용 사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북'(这有书) 서점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중점도서 전용구역 마련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올바른 지적관의 확립과 실천을 결합한 학습교양을 통해 당원간부들이 원자를 읽고 원문을 학습

하며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량장, 관점, 방법을 잘 견지하고 활용하여 실천과 인민과 력사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성과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황강은 서점의 커피 휴식레저, 수공 체험 등 경영 방식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연합 중인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펼쳐 '길'자를 찾아보면서 그들의 특색함과 사랑스러움을 칭찬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마운틴'(这有山) 문화관광복합체에서는 전민 국가안전 교양일 홍보 활동이 한창 진행중이었다. 황강은 사

업일군들과 친절하게 교류하고 나서 누가 집합하면 누가 선전하고 검사하는 곳마다 선전이 따라가게 하여 전민의 국가안전 의식과 소양을 확실하게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강은 여러 문화장의 상점들에 들어가 경영 상황을 상세히 묻고 길림성의 문화, 건축, 경관 등 특색 요소를 둘러싸고 독특한 제품을 개발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길림성에 흥미를 느끼고 찾아오고 싶도록 할 것을 그들에게 희망했다. 장춘 2027 세계대학생동계올림픽특허상품 전문경영업체에서 황강은 선전 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더욱 많은 품종의 문화창의제품을 설계, 개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대학생동계올림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에서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길림성은 봉사업 발전 공간이 넓다. 봉사업 확장 및 질적 향상 행동을 깊이있게 실행하고 생산성 봉사업을 전문화와 가치사슬의 높은 단계로 확장하며 생활성 봉사업의 고품질 다양화 및 편리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장춘은 책임을 확실히 지고 미래 시대에 더욱 큰 발전 잠재력과 강한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맞춤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영주체의 활력을 충분히 이끌어내고 더 많은 신규 봉사업 경영 방식을 창출하며 지속적으로 증량(增量)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장은혜, 왕자련, 류개가 조사연구에 참가했다.

/ 길림일보

길림대학 심가총교수 제 5 회 중국화학회 평생공로상 수상



년 '길림대학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심가총은 길림대학 화학학과 교수이자 저자 한명이다. 개혁개방 40여년 동안 그는 초분자과학연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부평(浮萍)'과 '역부평(倒浮萍)'과 같은 고분자 초박막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으며 일련의 새로운 유형의 조립 기원 및 조립 방법을 개발하여 유기 및 고분자 체계의 층상 조립 및 기능 조절을 실현했다. 초분자 개념과 광전자료를 결합하여 고성능 광전 기능 소재 설계의 새로운 전략을 독자적으로 제안하고 유기고분자 광전 기능 소재 분야에서 국외의 기술 독점 및 특허 분쇄를 깨고 중국 초분자과학 및 고분자 광전소재 연구를 국제무대에 이끌었다. 그는 초분자 자기조립과 고분자 광전소재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기여를 했으며 일련의 초분자 화학 및 소재 전문서를 출판했다.

4월 11일, 중국과학원 원사이자 길림대학 화학학원 교수인 심가총(沈家骢)이 초분자 자기조립 및 고분자 광전소재 연구 분야에서 이룬 탁월한 공헌으로 제 5회 중국화학회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심가총원사는 국내에 명성을 떨친 고분자화학자이자 초분자화학자로 우리 나라 '초분자과학' 연구의 개척자이자 선도자이며 유기 고분자 광전소재 분야의 창시자이다. 국가자연과학상 4개, 국가기술발명상 1개를 수상했으며 2018

한편, 중국화학회 평생공로상은 중국화학회가 중국 화학중사자들을 대상으로 제정한 최고의 상이다. / 중국길림넷



길림대학 살구꽃문화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4월 18일과 19일에 길림대학 남캠퍼스에서 펼쳐진다. 대학생들은 학생증을 가지고 랑만적인 살구꽃문화축제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춘시 여러 풍경들에서도 우대를 누릴 수 있다. / 길림일보

길림성 3개 학교 정식 통합

최근 길림성공정기능사학원과 길림성립업기능사학원이 통화사범학원에 정식으로 통합되면서 통화사범학원 백산캠퍼스에서 통합업무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서는 <길림성공정기능사학원과 길림성립업기능사학원을 통화사범학원과 통합할 데 관한 길림성인민정부의 답복>을 발표하고 <길림성공정기능사학원, 길림성립업기능사학원과 통화사범학원 통합사업계획>에 대한 해석을 진행했다.

통화사범학원 당위 서기 정위봉과 교장 주준의가 공동으로 통합후의 신설기관인 통화사범학원 응용기술학원·기능훈련센터 현판식을 거행했다. 길림성에너지국 부국장



류학봉과 길림성립업초원국 2급 순시원 강유군이 각각 원 관할기관을 대표하여 두 학원이 기능 인재 양성에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

며 통합후의 발전에 대해 확신을 표명했다.

료해에 따르면 통합후의 통화사범학원 응용기술학원·기능훈련센터는 길림의 전면 진흥을 위한, 고품질 응용형 인재에 대한 시급한 수요를 바탕으로 '공정기술+응용봉사와' '리론교육+실습훈련+기업 현장 실습'이라는 삼위일체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기대감, 안정적인 교수, 안정적인 인심, 안정적인 자산을 담담히 추진하며 발전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조화시키고 학교의 사회봉사능력을 지역 발전의 심층으로 확장시켜 지역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길림일보



4월 14일 도문시 장안진 광흥촌, 트랙터가 한창 밟고 있기를 하고 있다. 본격적인 봄철 농사 절기를 맞아 농기계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올해 풍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 안상근기자

연변 로인 버스카드 왜 현·시간 통용할 수 없나?

"연길서 모아산까지는 무료인데 모아산서 룡정 갈 때는 왜 돈 내나?"

최근, 본지는 연길시의 한 로인 독자로부터 이런 제보 한통을 받았다.

연길에 거주하는 이 로인에 따르면 연길시에서 발급받은 로인 무료승차카드 모아산까지는 버스 아무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지만 모아산에서 룡정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길시 로인 독자의 이런 궁금증을 갖

고 기자가 직접 취재에 나섰다.

<길림신문>이 알아본 결과 그 원인은 연변 각 현, 시의 지방재정으로 독립 운영되는 버스회사 구조 때문이었다. 연변내 로인 무료승차카드는 발급된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다른 현, 시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본지는 연길, 룡정, 화룡, 돈화 등 연변 각 현, 시의 로인 대중교통 우대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고 장춘과 길림시의 사례도 함께 전한다.

[관련 기사 6면]